

# 人の本来の姿は神様です 사람의 본래 모습은 하나님이다

히토노 혼라이노 스기타와 카미사마데스

## この世の中には二種類の神が存在する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신이 존재한다

まず、唯一なる神様と魔鬼の神が存在する。唯一なる神様は生命の神様であり、魔鬼の神は死亡の神である。첫째, 유일신(하나님)과 마귀신이 존재한다. 하나님의 신은 생명의 신이고, 마귀신은 사망의 신이다.

今日、神學大學の教授達でさえこのようなことを知らずに神學を教えている。神分別が出来ないのに神學を教えるということです。오늘날 신학대 교수들조차 이런 것을 모르고 신학을 가르치고 있다. 신분별도 못하면서 신학을 가르친다는 것이다.

生命の神様が存在するかと思えば生命の神様を殺してしまう魔鬼の神がいる。생명의 신이 존재하는가 하면 생명의 신을 죽여버리는 마귀의 신이 있다.

人間の中に居る魔鬼が生命の神様を馬のように乗り、あちこち馳り立てて回す。인간 속에 있는 마귀신이 생명의 신(하나님)을 말처럼 타고 이리저리 몰고 다니는 것이다.

太初、アダムとイブは神様であった。アダムとイブとの主體靈は神様であったのに、魔鬼の靈がアダムとイブとの眼を通じて心の中に入り、神様の靈を生け取りにして魔鬼の獄屋に閉じこめた後、魔鬼の神は唯一なる神様を馬のように乗り回しながら、魔鬼はアダムとイブの主體靈になってしまった。その瞬間、唯一なる神様の血と魔鬼の血が半分ずつ混ざり合った人間の血に変わってしまった。태초에 아담과 이브(해와)는 하나님의 신이었다. 아담과 해와의 나라는 주체영은 하나님의 신이었는데, 마귀의 영이 아담과 해와의 눈을 통해 마음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영을 생포로 삼아 마귀의 옥탑에 가둔 후, 마귀의 신은 유일한 신(하나님)을 말처럼 타고 다니게 되었고 마귀는 아담과 해와의 주체영이 되고 말았다. 그 순간 유일한 하나님의 피와 마귀의 피가 반씩 뒤섞인 인간의 피로 변해 버렸다.

だから、人間に変わったのです。魔鬼が、まさに神様の靈を生け取りにして、その次に魔鬼が主體靈になり、神様を動物の王である人間に作った。そして、アダムは男性になり、イブは女性になった。그래서 인간으로 변한 것이다. 마귀가 바로 하나님의 영을 제물로 삼고, 그다음 마귀가 주체영이 되어 가지고, 하나님을 동물의 왕인 인간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아담은 남성이 되고 해와는 여성이 되었다.

このような眞理をどこの科學者に教えることが出来、神學者が知っていてこのようなことを教えてくれるだろうか。絶対にこれは分からないようになっている。これは完全に魔鬼の機密です。이러한 진리를 어느 과학자가 가르칠 수 있고, 신학자가 알고 있어서 이런 것을 가르쳐 줄까? 절대로 이것은 알 수 없게 되어 있다. 이것은 완전히 마귀의 기밀이다.

## 人間の創造力は神様の子であることの證である 인간의 창조력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한다



人が神様の子であることの證は人が神様に似ていることで分かる。即ち、神様は創造力の持ち主である。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는 사람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즉, 하나님은 창조력의 소유자이다.

ところが、人びとが車を作ったり、飛行機を作ったのもやはり創造力による。그런데 사람들이 차를 만들거나 비행기를 만드는 것 역시 창조력에 의한다.

だから、人は神様の子に間違いない。人は神様の子に間違いないから、人の中には半分が神様の血であり、魔鬼の血がまた半分があることだ。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자식임에 틀림없다. 사람은 하나님의 자식임에 틀림없기 때문에, 사람 속에는 절반이 하나님의 피가 있고 마귀의 피가 또 절반이 있는 것이다.

## 聖書は人が魔鬼の操りを受けて記録したものだ 성경은 사람이 마귀 조종을 받고 기록한 것이다

人間は魔鬼の操りに従って心が動くようになっている。太初から魔鬼の操りによって心が動いたから、人びとが聖書を記録する時も魔鬼の神が操る通りに書いたものであり、神様によって聖書を記録したのではない。인간은 마귀의 조종에 따라 마음이 움직이게 되어 있다. 태초부터 마귀의 조종에 의해 마음이 움직였으므로,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도 마귀의 신이 조종하는 대로 쓴 것이지, 하나님의 신에 의해서 성경을 기록한 것은 아니다.

だから、聖書を魔鬼の操りによって書く時、神様ののみ言葉が少しずつ記録されたのは、魔鬼がよそ見をして別の考えをしている時、そのすき間を利用して神様がのみ言葉を話されたので、少しずつ聖書に神様ののみ言葉が記録されている。그래서 성경을 마귀의 조종에 의해 쓸 때, 하나님만의 말씀이 간간이 기록된 것은, 마귀가 한눈을 팔고 판 생각 하고 있을 때, 그 틈을 이용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였고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간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 마귀를 멸할 때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지만 정도령을 따르는 사람은 죽지 않으리라

격양유록 新 해설  
수정판 제 28회

### 생초지락(一) 生初之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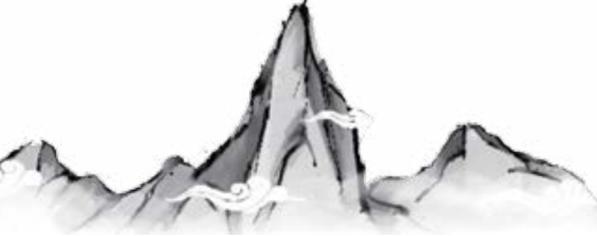
憂愁思慮雪氷寒 우수사려설빙한  
無愁春風積雪消 무수춘풍적설소  
湧出心泉功德水 용출심천공덕수  
一飲延壽石井巖 일음연수석성근  
毒氣除去不懼病 독기제거불구병  
大慈大悲弓人 대자대비궁공인  
博愛萬物夜獸將 박애만물야수장  
世上惡毒癘病人 세상악독부병인  
世上獸爭殲滅時 세상수쟁멸멸시  
殺人哀惜死地生 살인애석사지생  
殺人無處處死 살인무처처사

세상사에 온갖 근심과 시름으로 눈과 얼음처럼 꽁꽁 얼어붙은 마음을 구세주 하나님 정도령께서 따뜻한 봄바람이 쌓인 눈을 녹여주듯 풀어주시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난 샘물은 하나님의 공덕수(功德水)요 한 번만 마셔도 수명이 연장되고 마시고 또 마시면 영생 불사하는 곤륜산의 석정(돌우물)이요 세상의 독기를 제거하고 어떤 질병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니라. 대자대비하신 심승 정도령은 만물을 두루 사랑하지만 밤의 짐승 같은 마귀들은 세상을 악독하게 하며 사람을 찌고 병들게 하느니라. 세상은 짐승과 같은 마귀가 다루는 곳이라, 마귀 종자를 멸할 때 많은 사람이 죽는 것을 애석하게 생각 하셔서 사지(死地)에서도 살길을 마련하

셨으니 곳곳에서 사람이 죽어나가지만 심승 정도령을 따르는 사람은 죽지 않으리라.

桃花流水武陵村 도화류수무릉촌  
仙會忠孝種桃地 선회충효종도지  
海上萬里輪轉來 해상만리수랑래  
萬國志信歌舞來 만국충신가무래  
淨潔淨土別天地 정결정토별천지  
金築寶城四千里 금축보성사천리  
天長高臺空四陲 천장고대공사주  
十二門晝夜通 십이문개우야통  
仙官仙女案內入 선관선녀안내입  
金童玉女天君士 금동옥녀천군사  
彈琴一聲清雅曲 탄금일성청아곡

복숭아꽃이 피고 시냇물이 흐르는 무릉촌(武陵村) 즉 무릉도원의 한국 땅은 신선들이 모여 국충가효(國忠家孝)하는 복숭아 종자(선선이 될 사람)를 심는 곳이니라. 이곳을 향하여 바닷길로 수만리나 떨어진 곳에서 하늘의 양식을 실어가려고 찾아오며 만국의 충신들이 노래하고 춤추며 심승 정도령을 찾아오느니라. 심승 정도령이 계신 곳은 정결한 극락정도이며 세상 인간이 사는 곳이 아닌 신선이 사는 별천지이니라(별유천지비인간别有天地非人間). 금은보석으로 단장하여 지은 성은 사방 천리에 이른 것 같으리라. 금은보석으로 지은 축대(築臺)는 하늘 높이 솟아



있고 사방이 월세계(月世界=이상세계)와 같으니라. 열두 대문이 주야로 열려 있어 마음대로 오갈 수 있으며 선관 선녀가 출입을 안내하며 금동(金童 금빛 나는 소년)과 옥녀(옥과 같이 흰 선녀), 하늘의 임금과 선비가 타는 거문고 소리 청아하기 그 지없도다.

### 생초지락(二) 生初之樂

不徹畫霄雲 불철취소운고  
如雪白蝶雙去來 여설백접쌍거래  
細柳之間黃鳥聲 세류지간황조성  
溫谷白鳥作伴 온곡백조작작성  
桂樹天上月中宮 계수천상월중궁  
熾然樂光無比界 연연영광무비계  
滿陽宮殿日中君 청양궁전일중군  
水晶造制琉璃國 수정조제유리국  
金街路上歌人 금가로상가인  
無窮世月彈琴聲 무궁세월탄금성  
不知歲月何甲子 부지세월하갑자

밤이 없고 낮뿐이요 하늘엔 아름다운 구름 높이 떠있고 눈과 같이 흰 나비가 쌍쌍이 오가네. 버드나무 가지 사이에선 피리기가 노래하고, 파스한 골짜기에선 백조가 노래하며, 계수나무(영성)가 있다는 천상의 월세계와 같으니, 어여쁨과 영광이 비할 바 없는 아름다운 세계라. 맑고 밝은 청양궁전(淸陽宮殿)엔 태양같이 빛나는 임금이 계시니 수정같이 투명한 유리국(琉璃國)이로다. 하늘나라 사람들은 금길에서 거문고 비껴 타며 청아한 노래 부르니 무궁한 세월 흘러가는 줄 모르더라.

延年益壽初生法 연연익수초생법  
堂上父母千壽 당상부모천수  
膝下子孫萬歲榮 슬하자손만세영  
天增歲月人增壽 천증세월인증수  
春滿乾坤福滿家 춘만건곤복만가  
願得三山不老草 원득삼산불로초  
拜獻高堂鶴髮親 배헌고당학발친  
祈天禱神甘露飛 기천도신강로비

だから、それを知った預言者イザヤはイザヤ書34章16節に‘あなた方は主の書をつまびらかにたずねてこれを読み、これらのものは一つも缺けることなく、また一つもその連れ合いを缺くものはない’と記録した。그러므로 그것을 알게 된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서 34장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와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라고 기록하였다.

このようなみ言葉はキリスト教では分からず、勝利祭壇に来て始めて聞くようになる。이런 말은 기독교에서는 알 수 없고 승리제단에 와서야 듣게 된다.

私は神様が共になさるから、神様の深い事情を詳しく知って皆さんに教えている。이 사람은 하나님의 신과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사정을 자세히 알고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있다.

## 祭壇出席を一日休んでもいけない 제단 출석을 하루라도 쉬어서는 안 된다

この祭壇では何日間か出れば退屈で忙しいことがあると言いつけを取り付けて休む。だから一日休めば6か月が遅延されると言ったでしょう? 一日休めば6か月間の恩恵が連続されず罪が蓄積されて結局は病んで死んでしまうのである。이 제단에 며칠 동안 나오면 지루하거나 바쁜 일이 있다고 핑계를 대고 빠지는 것이다. 그래서 하루 쉬면 6개월이 지연된다고 그랬지? 하루 쉬면 6개월간의 은혜가 연결되지 않고 죄가 축적되어 결국은 병들어 죽고 마는 것이다.

皆さんは知らないが、毎日出ると皆さんの血が段段だん神様の血に変わる。たゆまず毎日出ると血がそれだけ澄む。そして、毎日出れば自然に受けた恩恵がだんだん積もって義人になって行く。여러분은 모르지만, 매일 나오면 여러분의 피가 점점 하나님의 피로 변한다. 꾸준히 매일 나오면 피가 그만큼 맑아진다. 그리고 매일 나오면 자연스럽게 받은 은혜가 점점 쌓여 의인이 되어간다.

われわれの祭壇は毎日神様の前に懺祭を行なって恩恵を受けるのである。皆さんが神様になり、우리 제단은 매일 하나님 앞에 반제를 지내고 은혜를 받는 것이다.

その次に救い主にならばこれ以上望むことのない永生體に変わる。여러분이 하나님이 되고, 그다음에 구세주가 되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영생체로 변한다.

人の體まともと死ぬ體である。その死ぬ體が永生體に変わると言うことは突然永生體になってしまうことではない。사람의 몸은 원래 죽을 몸이다. 그 죽을 몸이 영생체로 바뀐다는 것은, 갑자기 하루아침에 영생체가 되어버린다는 것이 아니다.

だから、毎日禮拜をすれば、少しずつ成し遂げられてついに神になってしまうのである。神になると私の説教を聞かずとも神様の恩恵が共にするから分かる。その時こそ、私は壇で皆さんをじっと見るだけで終わる。그렇기에 매일 예배를 드리면 조금씩 이루어져서 마침내 하나님이 되고 마는 것이다. 하나님이 되면 이 사람의 설교를 듣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 때문에 알게 되는 것이다. 그때는 이 사람이 단에 서서 여러분을 가만히 쪽 훑어보는 것만으로 끝난다.\*

永生福樂不死藥 영생복락불사약  
立春大吉建陽多慶 입춘대길건양다경  
天地反覆此今日 천지반복차금일

해를 거듭할수록 수명을 더하는 영원한 생명의 법이 처음으로 나왔으니 당상(堂上) 부모님은 천수를 누리시고 슬하의 자손들은 만세에 영화로다. 하늘은 세월을 더하고 사람은 수명을 더하니 봄기운이 천지에 가득하고 복은 집안에 넘치는 세월이 오도다. 원컨대 삼산(정도령의 불로초(이슬성신, 감로해인))를 캐내어 고당(高堂)에 계신 백발이 성성한 부모님께 드리 절하며 바치리다. 하나님께 일심으

로 기도하면 감로(이슬성신)가 내리리니 영생 복락의 불사약이로다. 입춘대길(立春大吉)이요 건양다경(建陽多慶)이니 천지가 뒤집어지는 즉 천지가 바뀌어 이날이로다. 입춘대길은 마귀를 이기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출현은 크게 길함이요 건양다경은 새롭게 빛의 나라(하늘나라)를 세우니 경사스러움이 많더라' 라는 뜻이다. 이로써 죽음의 세상은 끝나고 불사영생의 세상이 되는 것이다.\*

박명하 / 고서연구가  
myunghpark23@naver.com  
010-3912-5953

**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신문**

성금계좌 : 우체국 103747-02-134421 예금주 : 이승우

**승리신문은 독자님들의 정성어린 성금으로 만들어집니다**  
**전국 각지에서 성금을 보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승리신문** 1990.3.3 등록번호 다 - 0029

발행인 겸 편집인 김충만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랑함이 실제로 죽지않는 원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이 없는 개벽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우 14679  
홈페이지 [www.victor.or.kr](http://www.victor.or.kr)

광고 및 구독신청  
전화 032) 343-9985  
FAX 032) 349-0202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